

# 추사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

정 창 권 (고려대)

## < 목 차 >

1. 머리말
2. 추사가(家)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
3. 맺음말

## 국문초록

추사가의 한글편지는 추사체와 <세한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집안에서 나온 85건의 편지들을 말한다. 추사가 연간이 45건이고, 추사 인간이 40건이다. 이들 편지는 추사를 비롯한 선대와 후대 등 다양한 세대의 가족구성원이 주고받은 한글편지라는 점에서, 18~19세기 가족들의 생활과 문화, 언어, 의식 등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족사 자료이다. 특히 추사가의 한글편지엔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식 뿐 아니라 남성들의 살림에 대한 참여 양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후기는 완고한 가부장제 시대로 남성들은 오로지 바깥일에만 전념했을 뿐, 살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 추사가의 한글편지만 보더라도 당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살림에 참여하고 있었다. 추사가 여성들이 의식주 등 안살림을 주관하며 출산과 육아에 집중한 반면, 남성들은 가문관리, 가족관리, 노비관리, 살림살이, 집안행사 등과 같은 안팎의 살림에 두루 참여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추사가 여성들의 역할과 의식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추사가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핵심어: 추사 김정희, 한글편지, 살림, 집안일, 여성사, 가족사

## 1. 머리말

추사 김정희(1786~1856)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의 문신이면서 실학자이자 서화가였다. 그는 34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규장각 대교, 충청우도 암행어사, 홍문관 부교리와 교리, 예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 등 상당히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다. 또한 그는 금석학을 연구해 독창적인 추사체를 만들어냈으며, <세한도>로 대표되는 그림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sup>1)</sup>

추사가(家)의 한글편지는 그러한 추사 김정희 집안에서 나온 편지들을 말한다. 추사가 연간 45건과 추사 연간 40건 등 모두 합쳐서 85건이다. 추사가 연간 45건은 추사 집안의 사람들이 주고받은 한글편지로, 추사의 증조모 화순옹주가 혜경궁 홍씨에게 받은 편지 1건을 비롯해서 조모 해평윤씨의 편지 13건, 외조모 한산이씨의 편지 2건, 어머니 기계유씨의 편지 3건, 아버지 김노경의 편지 23건, 막내동생 김상희의 편지 2건, 서중손(庶從孫) 김관제의 편지 1건이다. 이들 편지 중 개인이 소장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은 고(故) 김일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sup>2)</sup>

추사 연간 40건은 추사 김정희가 아내 예안이씨와 며느리 풍천임씨에게

1) 유홍준, 『추사 김정희』, 창비, 2018, 참고.

2) 황문환·임치균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2, 역락, 2013, 414면 참조.

보낸 한글편지를 말한다. 아내 예안이씨에게 보낸 것이 거의 대부분인 38건 이고, 나머지 2건만 며느리 풍천임씨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사의 나이 33세인 1818년 아버지 김노경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 11건을 비롯해서 43세인 1828년 아내가 친정인 온양에 가서 있을 때 보낸 편지 3건, 1828년과 1829년 아버지가 다시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 15건, 1840년에서 1849년까지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19건, 아내의 사후인 1843년과 1844년 며느리 풍천임씨에게 보낸 2건 등이 있다. 이들 편지 역시 12건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고, 나머지 28건은 고(故) 김일근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sup>3)</sup>

이들 편지는 추사를 비롯한 선대와 후대 등 다양한 세대의 가족구성원이 주고받은 한글편지라는 점에서, 18~19세기 가족들의 생활과 문화, 언어, 의식 등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족사 자료이다. 특히 추사가의 한글편지에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식 뿐 아니라 남성들의 살림<sup>4)</sup>에 대한 참여 양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후기는 성리학에 기반한 완고한 가부장제 사회로 남녀가 내외를 분별하여 여성들이 살림을 거의 대부분 주관하고, 남성들은 바깥일에만 전념할 뿐 살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추사가의 한글편지를 보면 당시 남성들이 살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사가의 한글편지는 살아있는 조선후기 여성사 · 가족사 자료인 것이다.

3) 황문환 · 임치균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3, 역락, 2013, 16면 참조.

4) 본디 ‘살림’이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으로, 조선시대엔 크게 안살림(집안일)과 바깥살림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추사가의 한글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기초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편지에 대한 선행연구사는 크게 원문 판독, 서지적 연구, 국어학적 연구, 문학적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추사가의 한글편지 중 추사가 언간에 대한 원문 판독은 김일근<sup>5)</sup>, 김일근 · 황문환<sup>6)</sup>, 황문환 · 임치균 외<sup>7)</sup>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추사 언간도 김일근<sup>8)</sup>, 황문환 · 임치균 외<sup>9)</sup>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글편지는 소리글자에다 흘림체와 이어쓰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문편지보다 원문 판독이 어려운 편인데, 이들의 노고에 의해 어느 정도 원문에 가까운 판독이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의 번역, 즉 현대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sup>10)</sup>

추사가 한글편지의 서지적 연구는 단연 이종덕의 업적이 돋보인다. 그는 추사가 언간의 발신자와 수신자, 등장인물, 세부내용 등을 그야말로 자세히 조사했을 뿐 아니라<sup>11)</sup>, 추사 언간에 대해서도 기존 판독문의 오류수정, 편지 속에 등장하는 친인척, 발신시기 등을 꼼꼼히 조사하였다.<sup>12)</sup> 본 연구도 그의

5) 김일근, 『추사가의 한글편지들』상·하, 『문학사상』114~115, 문학사상사, 1982.

6) 김일근 · 황문환, 김노경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5, 문헌과 해석사, 1998년 겨울호. 김일근 · 황문환, 어머니 해평윤씨가 아들 김노경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6, 문헌과 해석사, 1999년 봄호. 김일근 · 황문환, 김상희가 아내와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7, 문헌과 해석사, 1999년 여름호. 김일근 · 황문환, 서제 김관제가 적형 김한제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9, 문헌과 해석사, 1999년 겨울호. 김일근 · 황문환, 아내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10, 문헌과 해석사, 2000년 봄호.

7)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2, 2013.

8) 김일근, 『삼정판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1.

9)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3, 2013.

10) 최근 필자는 추사가 한글편지의 현대역을 모두 마치고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

11) 이종덕, 추사가 한글편지에 대한 개괄적 고찰, 『추사의 삶과 교유』, 추사박물관, 2013.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밖에 박정숙은 추사가 여성들 가운데 해평윤씨와 기계유씨 한글편지 중 일부의 서체, 세부내용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sup>13)</sup>

국어학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병기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추사가 한글편지의 표기 및 음운, 문법적 특징을 고찰했다.<sup>14)</sup>

끝으로 문학적 연구는 김기현, 한창훈, 필자 등을 들 수 있다. 김기현은 추사 언간 33통을 토대로 추사의 부부상, 즉 호칭이나 관심사 등을 분석했고,<sup>15)</sup> 한창훈은 추사의 유배기 언간에 나타난 생활상이나 가족애, 제주에 대한 인식 등 문학적 성격을 분석했다.<sup>16)</sup> 기타 필자는 추사의 대표적인 한글편지를 토대로 부부사랑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sup>17)</sup>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추사가 한글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여성들의 역할과 의식 뿐 아니라 남성들의 살림에 대한 참여 양상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추사가 한글편지에 대한 여성사 · 가족사적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추사가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과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그 집안사람들의 인간적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한편 조선후기 가부장제의 실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모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12) 이종덕, 추사 한글편지의 판독과 해석, 『추사의 삶과 교유』, 추사박물관, 2013.

13) 심현섭 외, 『추사 가문 글씨의 위상』, 추사박물관, 2017.

14) 이병기, 추사가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66, 국어학회, 2013.

15)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고전문학연구』4, 한국고전문학회, 1988.

16)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기 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18, 제주도연구회, 2000.

17)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015.

## 2. 추사가(家)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

우선 추사가 여성들의 한글편지로는 추사의 조모 해평윤씨의 편지로 13건, 외조모 한산이씨의 편지로 2건, 어머니 기계유씨의 편지로 3건 등 모두 18건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편지에는 여성들이 의식주 등 안살림을 주관하거나, 가족갈등과 전염병 예방 등 집안을 단속하며,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들의 생활습관이나 인성을 교육하는 등 가족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기타 제사나 혼인 등 집안행사를 처리하는 모습도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추사가의 한글편지에는 남성들의 편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의 편지가 23건, 추사의 편지가 4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남성의 한글편지는 주로 관직이나 유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일 때 집으로 편지를 보내 의복이나 음식 부탁, 각종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김노경과 추사의 편지를 토대로 추사가 남성들의 살림참여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후기는 완고한 가부장제 사회로 남성들은 오로지 바깥일에만 전념했을 뿐, 살림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러한 가부장제 의식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남성들은 여전히 살림에 무관심한 채 사회활동, 즉 밖에 나가 돈만 벌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표면적인 인식에 불과하며, 실제 조선후기 남성들은 학문과 관직 등 바깥활동과 함께 살림에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단적인 예로 추사가의 한글편지만 보더라도 당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집안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위에서처럼 추사

가 여성들이 의식주 등 안살림을 주관하며 출산과 육아에 집중한 반면, 남성들은 일가친척 등의 가문관리,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 아내 등의 가족관리, 집안의 일꾼인 노비관리, 의식주 등 살림살이, 제사나 혼인 준비 등 집안행사 등과 같은 안팎의 살림에 두루 참여했다. 그럼 이제부터 추사가 남성들이 집안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 2.1. 부부공동의 책임

우선 추사가 남성들의 살림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자. 오늘날과 달리 추사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림을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추사는 자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래 집안일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이 부모님 봉양, 학문, 유배 등의 이유로 살림에 소홀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아무래도 집안일이 말이 아니어서 이리 답답합니다마는 얼마 동안이오 리까? 올해는 집안일을 모두 당신께 맡기고 나는 걱정을 말자 하였더니 다 뜻대로 아니 되오니 도리어 우습고 심난하고 난처한 일이 많으니 답답 할 뿐이옵니다. (추사 연간1 중 부분)<sup>18)</sup>

이 편지는 추사가 33살 때 경상도 일대에 금석문 답사를 다녀온 후 대구 감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서울집에 있는 아내 예안이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 해에 추사는 바쁜 일이 많아 집안일을 가급적 아내에게 맡기려고 했던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심난하고 난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집안일은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버거웠던 것이다.

18)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22면.

또한 추사는 자주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살림에 대해 의논하거나 아내가 시킨 일들을 잘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아래의 두 예문은 서울집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던 추사가 대구감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세간(살림)은 누가 잡고 거기에서 사는 모양들을 보니 어떠하옵니까? 실로 염려가 놓이지 아니하오며, 올해의 사은사들이 북경을 다녀오는 길에 구해온 문포(門布: 중국에서 나는 삼베) 두어 필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입으면 좋을까요? 당신은 없고 다시 의논할 길 없사오니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한 일이 많으니 민망하옵니다. 자세히 기별하옵소서. (추사 연간2 중 부분)<sup>19)</sup>

기별하신 것은 언어 어찌하오리이까? 여기에 두고 분부를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있사오리이다. 쪽(藍)이 없어 다 흰 것이라 하니 여기서 쪽물을 들이면 좋을 듯하옵니다마는 누구더러 들이라 하겠사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 혼수 말은 자세히 듣고, 당홍(唐紅: 옷감) 3승은 작년에도 들여오지 아니하고 올해도 아니 들여왔다 하니 이런 낭패가 없사옵니다. 당홍 3승을 앞집에서 작년에도 낭패를 하여 겨우 다른 데서 들여와 썼다 하옵니다. (추사 연간3 부분)<sup>20)</sup>

첫 번째 편지에서는 대구감영의 살림은 누가 주관하는지 묻고 나서 사은사들에게 구한 중국산 옷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내와 의논하고 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아내의 분부대로 옷감을 받아두면서 쪽물을 어떻게 들여야 할 지 묻고, 혼수감인 당홍을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한 걸 마치 자신

19)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3, 24면.

20)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3, 25면.

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전전공공해하며 변명하고 있다. 이즈음 추사는 한창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갖가지 살림에 신경 쓰며 아내와 함께 의논하거나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추사는 기본적으로 살림이란 부부공동의 책임이란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과거시험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항상 아내와 함께 갖가지 살림을 잘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 2.2. 가문관리

추사가 남성들은 자기 가족과 주변의 일가친척 뿐 아니라 결혼한 누님이나 처가 사람들도 일일이 챙기며 가문을 관리했다. 먼저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의 가문관리 모습부터 살펴보자. 김노경은 평소 아내 기계유씨의 부모와 형제 뿐 아니라 할머니인 장조모 광산김씨와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주 가깝게 지냈다.

사람이 오거늘 하서(편지)를 받아 보고 든든하오되 어르신(의 병환)이 여 전하신가 싶으니 제 마음에 염려를 떨치지 못하오며, 손서(손녀 사위)는 저번에 덧없이 다녀오니 섭섭하오이다. 보내신 것은 자세히 받자왔사옵나이다. (추사가 언간21)<sup>21)</sup>

김노경은 이렇게 평소 아내의 할머니와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또한 김노경은 이미 출가한 두 누님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다. 아래의 편지는 김노경이 윤씨 집안으로 시집간 큰누님 ‘윤집’<sup>22)</sup>에게 보낸 것인데, 김노경과 큰누님이 얼마나 가깝고

21)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42면.

친근한 사이였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최희(윤집의 딸)는 편지 한번을 아니하니 미워 죽겠사옵니다. 어머님 생신은 다다랐고 궁금하기에 이리 아뢰오니, 아주머님과 같이 편지를 보시기 바라옵나이다. 18일 아우(김노경)가 올린 편지는 곁봉투가 없어 한곳에 넣어 보내오니 누님이 보시고 홍보며 웃지 마옵소서. 정인(윤집의 아들)은 무사히 들어오고 영행(큰매형의 행차)도 안녕히 도착하신 일 기쁘오나, 큰 누님 편지를 보니 새로이 애통한 마음이 드옵나이다. (추사가 언간 20 중 부분)<sup>23)</sup>

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큰누님이 편지를 보내와 그에 대한 답장을 쓴 것인데, 덩달아 조카들과 매형의 안부를 묻고 있다. 이 편지에서는 특히 조카가 편지 한번을 아니하니 미워죽겠다거나 봉투가 없어 한곳에 넣어보내니 홍보지 말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일상어와 농담조로 얘기하며 누님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마치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아주 다정한 형제와도 같았던 것이다.

추사도 역시 집안의 종손으로서 더욱 가문관리에 신경 써야 했다. 특히 그는 8살 무렵 큰아버지 김노영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가(生家)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양가(養家)의 다섯 누님들까지 일일이 챙겨야 했다. 아래는 서울집에 있던 추사가 대구감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 예안이씨에게 집안 소식을 알려주는 편지의 일부이다.

앞택(사촌형 김교희)의 둘째어머님(작은어머니 연일정씨 추정)께서 중

22) 추사가 남성들은 결혼한 여성들을 이름 대신 시택명이나 지명, 남편의 관직명으로 부르곤 했다.

23)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54면.

기로 고생하시더니 지금은 조금 나오시니 많이 염려하였더니 다행이옵니다. 평동 누님(둘째누님 이희조의 처 추정)도 편치 못하게 지내시더니 요새는 또 나오시고, 난동 조씨집(다섯째누님의 딸 추정)이 회충으로 병이 아주 기괴하여 지금 10여일째 증세를 알지 못하니 이런 답답할 데가 없사옵니다. 심란하여 이만 그치옵니다. (추사 언간5 중 부분)<sup>24)</sup>

이렇게 추사는 아내 예안이씨에게 옆집에 사는 작은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누님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추사는 평소 주변의 일가친척이나 누님들의 동향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또 훗날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에는 넷째누님의 회갑이 다가오자 두 달 전부터 미리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회갑 준비에 대해 의논하고, 회갑이 지난 뒤에도 편지를 보내 잔치를 잘 치렀는지 묻기도 한다.

차동(넷째누님 민치항의 처)의 회갑 의복은 어찌하여 보냈사옵니까? 막연히 생각뿐이니 정리에 견디기 어렵사옵니다. 회갑 날에 조반이나 하여 잡수시게 돈냥을 또 얻어 보내야 할 것이니 어찌 생각하옵니까? 다소간 의논들 하여 보게 하옵소서. (추사 언간23 중 부분)<sup>25)</sup>

그 사이에 차동(넷째누님 민치항의 처)의 회갑이 지났으니 천 리의 바다 밖에서 이런 인정과 도리가 없고, 소식도 알 길이 없으니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닌 듯하옵니다. 의복은 어찌하여 보내었사옵니까? 그날 여러 누님들이나 모여 지내셨다하옵니까? (추사 언간24 중 부분)<sup>26)</sup>

---

24)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28면.

25)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60면.

26)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62면.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넷째누님의 회갑이 다가오자 그때 입을 의복과 음식 비용을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회갑이 지난 후 의복은 어떻게 해서 보냈고 잔치는 다른 누님들까지 모여 잘 치렀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사는 비록 제주도 유배된 몸이지만 집안의 종손으로서 누님의 회갑잔치를 꼼꼼히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추사가의 남성들은 처가 사람들이나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누님들, 주변에 사는 일가친척 등을 두루 챙기며 가문을 잘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후기를 철저한 출가외인 시대로 알고 있었으나<sup>27)</sup>, 추사가의 한글편지를 보면 18~19세기에도 여전히 출가한 딸들이 친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3. 가족관리

추사가 남성들은 가문관리 뿐 아니라 한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아내 등 자기 가족들도 잘 보살피고자 했다. 특히 그들은 자식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며 가르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대개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남성들은 그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며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한편 인간이란 종족을 보존하고자 했다. 예컨대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은 평소 며느리들의 임신과 출산 및 손자 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예컨대 김노경이 고금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셋째며느리 죽산박씨가 임신했다고 하자, 이렇게 큰며느리 예안씨에게 편지를 보내 셋째며느리가 노산(老産)이니 각별히 조심을 시키라고 당부한다.

---

27)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38면 참조.

들으니 교관택(셋째며느리 죽산박씨)이 또 태기가 있다 하니 이런 다행한 일이 어디 있으리. 그러나 지금은 노산(老産)이 되어가니 각별히 음식 붙이라도 더 조심하고 지내게 하여라. 천리 밖에서 걱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추사가 연간32 중 부분)<sup>28)</sup>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들은 상당수가 출산 시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그래서인지 김노경도 나이가 있는 셋째며느리의 출산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이때 죽산박씨의 나이는 35세였기 때문이다.

이후 셋째며느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출산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던 듯하다. 이에 김노경은 손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잃었다면서 몹시 안타까워한다.

죽산택(셋째며느리 죽산박씨) 어린 것도 끝내 구하지 못한가 보니 조손(祖孫)이 얼굴도 모르고 어느덧 비참한 소식을 들으니 더욱 잔인하고 끔찍스러우며, 내가 세상에 있기 차마 괴롭다. (추사가 연간39 중 부분)

셋째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했지만 아기가 곧 죽었다고 하자, 김노경은 '내가 세상에 있기 차마 괴롭다'고 하며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의료의 미발달과 면역력 약화로 유아사망률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김노경은 또한 손자들의 건강과 교육 등 양육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 심지어 그는 손자들의 아명을 짝이, 짝출, 짝쇠 등처럼 일부러 밍게 지어 그들의 목숨을 지키려 했다. 당시엔 아이들의 이름이 예쁘면 악귀들이 시기

28)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3면.

29)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너머북스, 2009, 33면.

해서 데려간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822년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중국으로 가는 도중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서울집에 있는 둘째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이다.

팍이 남매는 잘 있고, 팍이의 장난은 어떠하여 가며, 지각(知覺)은 더 열려 가는지 잠들 때 말고는 어찌 잊으리. 홍역은 끝내 아니 하는가 싶지만, 꼭 그렇다 여기지 말고 부디 조심하여라. (추사가 연간29 중 부분)<sup>30)</sup>

팍이 남매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셋째며느리 죽산박씨의 자식들로 추정된다. 김노경은 동지부사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도 며느리에게 편지를 보내 손자들의 교육에 대해 묻고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마찬가지 추사도 두 제수씨나 며느리 등 가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추사는 바로 밑의 동생 김명희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의 가족인 제수씨와 조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남성(지역)에서는 좌랑댁(동생 김명희의 처 경주최씨 추정)이 어제 산하시고 아들을 낳으시니 이런 경사가 없사옵니다. 산후에도 탈이 없다 하오니 기쁘웁니다. (추사 연간13 중 부분)<sup>31)</sup>

창녕댁(동생 김명희의 처 경주최씨)은 들어왔사옵니까? 아기도 잘 있사옵니까? (추사 연간19 중 부분)<sup>32)</sup>

30)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0면.

31)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41면.

32)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52면.

오늘 아이(동생 김명희의 아들)가 돌이 되오니 기특하고 든든하오나 멀리서 볼 길이 없으니 섭섭하고 결연하기를 어찌 다 적겠사옵니까? 응당 돌잡이는 잘했을 듯하오며 이리 궁금하기가 끝이 없사오이다. (추사 언간 16 중 부분)<sup>33)</sup>

첫 번째 편지는 추사가 친정에 가 있는 아내 예안씨에게 보낸 것인데, 동생 김명희의 처인 제수씨의 순산에 대해 집안의 경사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있다. 게다가 산후에도 탈이 없어 더욱 기쁘다고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평양감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추사가 서울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데, 역시 태어난 아기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뿐 아니라 1년이 지나 돌이 되어서는 돌잡이를 잘했는지 몹시 궁금한 표정으로 묻고 있다. 이처럼 추사는 당시까지도 적자(嫡子)가 없어서인지 동생 김명희의 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았다.

이와 같이 추사가 남성들은 본디 여성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높은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 2.4. 노비관리

추사가 남성들은 집안의 일꾼인 여러 노비들도 관리해야 했다. 흔히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아무런 인권도 없고, 주인 역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노비도 분명 자신만의 주체적 의식을 갖고 살았고, 주인도 그들을 엄연한 집안의 일꾼이자 식구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오늘날 회사의 직원과도

33)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6면.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아래는 1831년 김노경이 고급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큰머느리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러한 노비의 모습과 노주(奴主)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성득(노비)의 병은 어떻게 못 온다 하노니 그 놈의 일이 아마 부릴 길이 없으니 아주 내쳐버리는 것이 좋겠으니 자세히 알아보아라. 악남(노비)은 실로 격정만 되지 내려와도 쓸 데 없으니 딱하다. (추사가 언간32 중 부분)<sup>34)</sup>

성득(노비)은 무슨 병이 있어 여태까지 못 온단 말이니? 서너 달이 되도록 아니 나오면 죽을 병인가 보고, 죽을 병 같으면 드러눕든 아니하고 밖에 나다니기는 어떤 일이라니? 별도로도 기별하겠거니와 아주 집에 부치지 말고 어서 내쫓아 집안에 부치지 말게 하여라. 사람이 인정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어찌 그러하며, 진짜 병이라면 양반의 눈과 말을 피하고 밖으로 나다니는 그런 병이 어디에 있으리? (추사가 언간33 중 부분)<sup>35)</sup>

성득이란 집안 노비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 대며 자꾸만 유배지로 내려오지 않자, 화가 난 김노경이 그럼 아예 집에서 내쫓아버리라고 지시하고 있다. 아마 성득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멀리 김노경의 유배지에 가서 사역하는 걸 피하려 했던 듯한데, 이렇게 당시 노비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명령에 쉽게 따르지 않으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인인 김노경이 도리어 노비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비를 하나의 소유물보다는 일종의 직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일 것이다.

34)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3면.

35)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4면.

또 이후 1831년 11월에는 찬모 덕년이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유배지로 내려오자 김노경은 아래와 같이 감투 하나를 선물로 주고, 며느리에게 편지를 써서 서울에 두고 온 덕년의 자식들에게도 옷을 따뜻하게 입히며 잘 보호해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덕년(찬모)은 내려와 저로서는 정성껏 하니 그도 사람인가 하며, 저번에 여기에 올려고 기를 쓰고, 이제 감투 하나를 주니 좋아서 빙긋웃는 모양이 그 물골이라도 참혹하지 않아 보이니 웃는다. 함께 귀양 온 한 찰방이 그 모양을 보고서 우스워 거의 울 듯한 모양이요 정말 어지간하다 하니 사람의 소견이 저러하구나. 제 자식들을 서울에 두었으니 어찌하였느냐? 옷이나 따뜻하게 하여 주었느냐? 옛 사람이 말하되 ‘저도 또한 사람의 자식이니 가히 잘 대접하라’고 하고, 천리에 모자(母子)를 떼어 놓으니 아무리 종의 자식이라도 그 정이 아니 불쌍하라? 사연이 무궁하되 그친다.  
(추사가 연간37 중 부분)<sup>36)</sup>

자신에게 음식을 해주기 위해 유배지까지 내려온 덕년에게 김노경은 매우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만한 포상과 대접을 해주고 있다. 과연 조선후기 양반과 노비는 오늘날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가까웠던 것이다.

추사의 노비관리법은 아버지 김노경보다 한층 더 인간적이었다. 추사도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노비 둘과 함께 지냈는데, 한 노비가 아프면 다른 노비에게 곁에서 간호하도록 하는 등 극진히 돌보았다. 다음은 유배 3년째인 1842년 추사가 예산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이다.

갑쇠(노비)가 시절병(전염병)으로 앓아 지내더니 무사히 출장을 시켜

36)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8면.

지금은 염려를 놓사오나, 그 사이에 그런 심려를 어찌 다 적겠사옵니까?  
한의(노비)도 간병을 시키느라 즉시 못 보내고 이제야 보내오며, 이 동네  
에도 차차 조금씩 시절병이 진정되어 가니 다행이옵니다. 추사(노비)가 죽  
었다 하니 여러 해를 쫓아 섬기던 것이 불쌍하옵니다. 젓붙이(어린이)나  
있던 것이옵니까? (추사 언간39)<sup>37)</sup>

이처럼 추사는 함께 지내던 노비 갑쇠가 전염병에 걸리자 한없이 걱정하  
며 다른 노비인 한의에게 간병토록 했다. 또 예산집의 여종 추사가 죽었다는  
소식에 불쌍하다고 하면서 흑시라도 딸린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이후 하루는 그러한 노비 갑쇠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서울로 올려보내는  
데, 추사는 그 가는 모습을 보고 몹시 슬퍼한다. 아래도 추사가 예산집에 있  
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이다. 물론 당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말이다.

갑쇠(노비)를 아니 보낼 길이 없어 이리 보내나 그 가는 모양이 몹시  
슬프오니, 객지에서 또 한층 심회를 정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추사 언간32  
중 부분)<sup>38)</sup>

지난번 추사의 도움으로 전염병에서 살아난 뒤 갑쇠는 더욱 충실한 하인  
이 되었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추사는 갑쇠가 서울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몹시 슬퍼하고 있다. 그 동안 두 사람은 한층 더 정이 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추사가 남성들은 집안의 일꾼인 여러 노비들도 관리해야 했는

37)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2, 460면.

38)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2, 453면.

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폭압이나 강제적 관계가 아닌 대단히 상호 이익적이며 인간적인 관계였던 것이다.

## 2.5. 살림살이

조선시대엔 의복과 음식, 청소 등 안살림은 주로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렇다고 추사가 남성들이 안살림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의복과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옷감이나 반찬거리 등 재료를 뒷바라지했으며, 또 상황에 따라선 직접 옷짓기나 요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먼저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은 평소 의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의복을 어떻게 지어서 보낼지 상세히 알려주곤 했다. 아래는 1830년 김노경이 고급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떤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이다.<sup>39)</sup>

여기는 서울과 달라 모구(毛具: 털로 만든 방한구)할 게 변변히 없고 두루마기와 토시를 다 누빈 것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두루마기와 토시들은 다 흰 것으로 하여 잠깐 사이에 더러워지니, 전에 짙은 회색으로 만든 두루마기와 토시들을 보낼 것이요, 두루마기는 얇은 세누비로 지은 그 전에 입던 낡은 것이 있는데 아니 보내고 어쩐 일이니? 그 앞에 하나 지어 보내고, 토시는 짓기 어렵지 아니한 것이니 얇은 것, 두꺼운 것 한 벌씩 염색을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짙은 빛으로 하여 보내면, 이미 내려온 흰 토시와 겹쳐 끼면 겨울나기는 넉넉할 게다. (추사가 언간31)<sup>40)</sup>

39) 이 편지는 김노경이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쓴 것인데, 세 며느리 중 정확히 어느 며느리에게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40)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2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김노경은 평소 자신의 옷가지 뿐 아니라 각종 옷들의 짓는 법, 염색법, 착용법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의복수발을 부탁했던 것이다.

마찬가지 추사도 아버지 김노경처럼 의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앞에서처럼 아내가 부탁한 옷감을 구해주기도 했다. 또 추사 역시 1840년에서 1849년까지 9년여 동안 제주도에 유배살이를 할 때 위의 김노경처럼 자신의 의복을 직접 관리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으로 아래의 편지 한 건만 살펴보자. 이 편지도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추사가 예산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것이다.

겨울에 벗은 옷을 올려 보내오니 미리 또 고쳐 보내셔야 되겠사웁니다. 여기는 겨울 것을 여름에 신경 써야 민겠사웁니다. 바지는 무명으로 만든 것을 고쳐 보내고, 명주 바지는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 토주(土紬: 명주) 바지 하나 있는 것은 조금 두껍기에 입지 않고 아직 두었사웁니다. 두루마기나 둘 다 고쳐 보내옵소서. 무명 두루마기가 해롭지 아니하니 헤아려 하옵소서. 소매 있는 두루마기는 내려온 것이 그대로 다 있으니 다시 하여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에서는 자주 입는 것이 아니오니 여러 벌이 부질없사웁니다. (추사 언간23 중 부분)<sup>41)</sup>

봄 4월에 겨우내 입었던 옷들을 벗어 집으로 보내며 벌써부터 겨울옷을 장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특히 유배객으로서의 처지를 생각해서인지 바지나 두루마기를 화려한 명주가 아닌 수수한 무명옷으로 해달라고 한다. 그만큼 추사의 성격은 꼼꼼하고 치밀했던 것이다.

한편, 추사가 남성들은 평소 음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상황에 따

41)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60면.

라선 본인이 직접 음식을 관리하거나 심지어는 요리에 관여하기도 했다. 예컨대 김노경은 이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양반사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관리하곤 했다.

여기는 북어가 매우 귀하고 섬 사람들은 사먹지 아니하기에 오랫동안 맛을 잊게 되었던지 보내온 것을 먹고 입맛이 쾌히 도니 다른 것은 말고 이 앞으로 북어를 많이 두드려 보내고, 가자미가 나가든 여름에 두고 먹을 만큼 얻어 보내고, 새우젓도 여기는 매우 귀하니 여름에 두고 찌개를 해도 될 만큼 큰 항아리 가득히 좋은 것으로 사서 앞으로 뺏길 이 있을 것이니 부쳐라. (추사가 언간33 중 부분)<sup>42)</sup>

고금도에 유배되어 있던 김노경이 큰며느리 예안이씨에게 편지를 보내 북어와 가자미, 새우젓 등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손수 챙기고 있다. 특히 그는 생선류 반찬을 좋아했던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때로 요리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아래의 편지도 그가 고금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서울집의 며느리들에게 보낸 것이다.

일전에 창녕(둘째아들 김명희)의 생일에 만두를 하여 먹으니, 메밀은 먹물을 드려 놓은 것 같고 김치가 없어 변변히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인편에 메밀가루를 조금 얻어 보내고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기별하면 다시 만들어 보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 (추사가 언간35 중 부분)<sup>43)</sup>

김노경이 아들의 생일에 만두를 해봤는데 메밀가루와 김치가 없어 제대로

42)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4면.

43)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56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서, 앞으로 메밀가루와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요리는 데리고 있는 노비들이 하고 자신은 곁에서 지시만 했겠지만, 조선 시대 양반사대부도 의외로 집안일에 있어서 체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것이다.

추사도 역시 아버지 김노경처럼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음식을 관리하곤 했다. 특히 추사는 그 꼼꼼한 성격만큼이나 음식도 매우 꼼꼼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아내가 보내준 음식이 혹 상하여 먹을 수 없거나 입에 맞지 않으면 다시 장만해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도 대단히 많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건의 편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애써 마련하여 보낸 찬물(반찬거리)은 마른 것 외에는 다 상하여 먹을 길이 없사옵니다. 약식과 인절미가 아깝사옵니다. 빨리 와도 성하게 오기 어려운데, 길면 일곱 달 만에 오고 빨라야 두어 달 만에 오는 것이 어찌 성하게 올까 보옵니까? 서울에서 보낸 침채(김치)는 워낙 소금을 과하게 한 것이라 비록 맛은 변했으나 그래도 김치에 주린 입이라 견디어 먹었사옵니다. 새우젓은 맛이 변했고, 조기젓과 장복이(붉은 고추장)가 맛이 그리 변하지 않았으니 이상하옵니다. 민어와 산포(쇠고기 포)는 관계치 아니하옵니다. 어란(魚卵) 같은 것이나 그 즙음해서 얻기 쉽거든 얻어 보내옵소서. 산채(산나물)는 더러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순전히 먹지 아니하니 괴이한 풍속이옵니다. 고사리, 소루쟁이와 두릅은 있기에 간혹 얻어먹사옵니다. 여기는 도무지 저자와 시장이 없으니 모든 것이 매매가 없고 있어도 몰라서 얻어먹기 어렵사옵니다. (추사 언간21 중 부분)<sup>44)</sup>

---

44) 황문환 · 임치균 외, 위의 책3, 56면.

이즈음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장만하여 보냈다. 언뜻 보아도 약식과 인절미, 새우젓, 조기젓, 장복이, 민어, 산포, 어란 등 맛있고 고급스런 음식들이다. 하지만 예산에서 제주도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길면 일곱달, 빨라야 두달이 걸렸으니 그것들이 성할 리 만무했다. 추사는 아내의 정성을 알기에 미안하고 안타까우면서도 그 음식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면서 상하거나 부족한 것들은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추사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남성들은 의복과 음식 등 안살림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추사가 남성들의 경우의 외로 안살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 2.6. 제사 지내기

그밖에도 추사가 남성들은 제사나 혼인 같은 집안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은 유교사회로,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제사 역시 부부가 함께 지냈는데, 주로 남자는 각종 제물거리를 마련하고 제계 및 지방을 준비하며 제의를 주관해야 했다. 반면에 여자는 제수(제사음식)를 장만하고, 제의에 참석하기도 했다.<sup>45)</sup>

추사가 남성들도 집안의 제사 모시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예컨대 김노경은 관직이나 유배 등으로 인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항상 집에 편지를 보내 원통하다고 말했다.

---

45) 정창권, 『홀로 버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81~89면.

당번은 어느 날 나갈 줄 모르고 아버님 병환도 낫지 못하시니 매우 걱정하는 중 19일 제사도 매년 이 벼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니 원통함을 어이 다 적겠사옵니까? (추사가 언간 23 중 부분)<sup>46)</sup>

26일 제사(아버지 김이주의 제사)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낼런고? 너도 병들고 지금은 시제사도 아니 지내고 마침 기제사 밖에 없는데, 행여 종(노비)의 자식 하나라도 무슨 불결한 일이 있을까 보아 걱정이며, 천리 밖에서 또 이날을 지내려 하니 망극하고 통한할 수밖에 무슨 말을 하리. (추사가 언간42 중 부분)<sup>47)</sup>

첫 번째는 현릉원 령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노경이 서울집에 있는 아내 기계유씨에게 보낸 편지인데,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금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셋째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버지의 기제사에 참석하지 못해 망극하고 통한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타깝고 애석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김노경은 항상 자신도 집안의 제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추사는 월성위가의 종손으로서 더욱 제사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살이를 할 때 아내 예안씨에게 이미 결혼한 상무를 양자로 들였는데, 이후 양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제사의 중요성과 제사상 차리는 범절을 가르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실제로 추사는 평소 조부모를 비롯한 양가(養家)의 부모, 친모 등 많은 제사를 지냈고, 아내가 없으면 본인이 제사를 주관하여 지내곤 했다. 다음은 추사가 대구감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러한 추사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46)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44면.

47)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2, 463면.

나는 초4일 제사(양부 김노영 제사)를 지내니 새로이 망극지통(한없는 슬픔)을 어찌 다 적겠사옵니까? 둘째누님(이회조의 처)도 들어오시고 병중의 차동(넷째누님 민치행의 처 추정)에서도 들어오셔 모여 지냈으나, 당신이 멀리 계시니 서운하기 끝이 없사옵니다. (추사 언간6 중 부분)<sup>48)</sup>

나는 오늘 제사(양모 남양홍씨 제사 추정)가 다가오니 새로이 망극지통(한없는 슬픔)을 어찌 다 말하오리이까? 제사는 겨우 차려 지내나 일따가운 일이 많으니 이리 민망하옵니다. (추사 언간7 중 부분)<sup>49)</sup>

나는 제사(조모 해평윤씨 제사)가 가까워오니 새로이 할머니 생각이 끝이 없사오며, 제사 때가 될수록 주부가 없이 지내니 민망하고 또 민망하옵니다. 당신은 편히 있어 이런 생각도 아니하시고 계신 일이 도리어 우습사옵니다. (추사 언간8 중 부분)<sup>50)</sup>

이렇게 추사는 양부와 양모, 조모 등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주부인 아내가 없으면 자신이 제물까지 주관하여 지내곤 했다. 그때마다 추사는 주부가 없이 제사를 지내니 제물이 제대로 차려지지 못했을까 걱정되었던 듯 아내에게 자꾸만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사가 남성들은 집안행사 중 제사를 매우 중시했는데, 대개 제사는 부부가 함께 준비하여 최대한 정성스럽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

48)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30면.

49)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32면.

50) 황문환·임치균 외, 위의 책3, 33면.

### 3. 맺음말

조선후기는 완고한 성리학적 가부장제의 정착으로 남녀가 서로 내외를 분별하여 여성들이 살림을 거의 대부분 주관하고, 남성들은 학문이나 관직생활 같은 바깥일에만 신경 썼지 집안 살림에 대해선 문외한이고 일체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조선후기 남성상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도 여전히 전근대 사회로 국가보다는 집안의 비중이 훨씬 컸고,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았다. 당시 집안은 의식주 등 일체의 생산과 소비 활동만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종교, 복지,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집안은 오늘날 중소기업과 맞먹는 거대한 사회였고, 집안일도 엄청난 사회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부장제 국가라 할지라도 남성들도 늘 집안 살림에 신경 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여성들의 주요 역할인 음식과 의복 수발 등 안살림, 임신과 출산 및 육아는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차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남성들은 평소 학문과 예술, 관직생활 같은 대외적인 활동 뿐 아니라 각종의 살림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살림은 철저한 내외간 협력에 의해 유지되었고, 조선후기에도 남성들의 살림참여는 여전히 일상적이었다. 추사가의 한글편지는 바로 이러한 조선후기 가족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추사가 남성들의 살림참여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우선 추사가 남성들의 경우 살림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란 인식을 갖고 있

었다. 그래서 학문이나 관직생활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아내와 함께 갖가지 살림에 참여했다. 또 그들은 처가나 누님들, 주변의 일가친척을 두루 챙기며 가문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 부부 등 자기 가족도 보살폈다. 심지어 그들은 여성의 영역인 임신과 출산, 양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며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와 함께 집안의 일꾼인 노비들도 관리했는데, 추사가의 주도관계는 대단히 상호 이익적이자 인간적이었다. 나아가 추사가 남성들은 의복이나 음식 등 안살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선 직접 그러한 안살림을 관여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안일의 한계란 없었던 것이다. 그밖에 추사가 남성들은 집안 제사도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한다고 여겼고, 만약 주부가 없으면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장만하여 지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추사가 남성들은 평소 학문과 예술, 관직생활 같은 대외적인 활동 뿐 아니라 각종의 살림에도 참여했다. 그결과 어쩌면 그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 남성들도 이전의 처가살이 시대의 남성들처럼 그저 집안의 대표자에 불과했지 결코 가부장적 권력의 향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sup>51)</sup>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 사회도 남녀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회활동과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일-가정 양립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사라지는 재앙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아내 혼

---

51) 본고는 추사가의 한글편지에 한정해서 고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선의 살림하는 남자들』이란 후속 저서를 준비 중에 있다.

자서는 도저히 살림과 육아, 자녀교육 등 집안일을 감당해낼 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고전문학연구』4, 한국고전문학회, 1988.
- 김일근, 『삼정판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1.
- 김일근, 「추사가의 한글편지들」상 · 하, 『문학사상』114~115, 문학사상사, 1982.
- 김일근 · 황문환, 김노경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5, 문헌과 해석사, 1998년 겨울호.
- 김일근 · 황문환, 어머니 해평윤씨가 아들 김노경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6, 문헌과 해석사, 1999년 봄호.
- 김일근 · 황문환, 김상희가 아내와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7, 문헌과 해석사, 1999년 여름호.
- 김일근 · 황문환, 서제 김관제가 적형 김한제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9, 문헌과 해석사, 1999년 겨울호.
- 김일근 · 황문환, 아내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10, 문헌과 해석사, 2000년 봄호.
-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너머북스, 2009, 33면.
- 심현섭 외, 『추사 가문 글씨의 위상』, 추사박물관, 2017.
- 유홍준, 『추사 김정희』, 창비, 2018.
- 이병기, 추사가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66, 국어학회, 2013.
- 이종덕, 추사가 한글편지에 대한 개괄적 고찰, 『추사의 삶과 교유』, 추사박물관, 2013.
- 이종덕, 추사 한글편지의 판독과 해석, 『추사의 삶과 교유』, 추사박물관, 2013.
-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31~39면.
-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81~89면.
-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015.
- 한창훈,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18,

제주도연구회, 2000.

황문환 · 임치균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2, 역락, 2013.

황문환 · 임치균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3, 역락, 2013.

## 【Abstracts】

### Participation aspect of men's housekeeping in the Hangul letters of the Chusa family

Jeong, Changkwon

Hangul letters of the Chusa family are 85 letters of the Chusa Kim Jeong-hee's family, famous on calligraphic style of the Chusa and the picture of <Sehando>. The letters of the Chusa family are 45 letters, and the letters of the Chusa are 40 letters. They are Hangul letters which have passed between previous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 and they are very important family history data that give us family life and culture, language and consciousness in 18~19th century. Especially, the Hangul letters of the Chusa family show the participation aspect and meaning of men's housekeeping as well as the role and awareness of women.

The late Joseon Dynasty is known to have had a rigidly patriarchal society and men have just focused on going on in the rest the world, and have thought that housekeeping was usually women's share. However, to review the Hangul letters of the Chusa family, men of those days were participating for housekeeping more than women.

The female members of the Chusa family managed housekeeping,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they focused on childbirth and childcare. On the other hand, the male members of the Chusa family participated in family affair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me, such as his

family, family members, household goods, family function.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and awareness of the female of the Chusa family, and then is to study in earnest about participation aspect and meaning in housekeeping of the male of the Chusa family.

keyword: Chusa Kim Jeong-hee, Hangul letters, housekeeping, housework, history of korean women, family history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